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5

2002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 에스겔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5

충현의 만나

2002

가정예배 · 에스겔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도제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고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교회 일꾼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여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6.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 주소서.

5월의 ‘맑음’



요즘을 들어서 중국에서 불어오는 보래바람 때문에 애를 먹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맑은 하늘을 바라본 것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긴, 하늘이 잿빛으로 보이는 것은 황사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미 도시의 공해는 우려의 수준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도시의 꼬맹이들은 하늘을 회색으로 칠한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맑은 하늘과 구름, 찬란한 해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칙칙해도 하늘로 날아오르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는 태양, 주님의 마음을 닮은 맑은 하늘과 포근한 구름이 조용히 누워있으니까요! 그 때문일까요? 자꾸만 맑은 하늘과 찬란한 태양, 흰 구름이 그림처럼 걸려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 보고싶어집니다.

그리고 문득,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것들은 이것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악하고 거짓된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참사랑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그리고 성령의 위로를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슬프고 안타까운 것은, 오염된 환경 때문에 하늘이 회색이라고 믿는 아이들처럼, 세상 때문에 천국이 우리들의 마음에서 왜곡되거나 가려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 2:13)

충현의 모든 식구들의 영혼에 속히 맑은 날이 찾아오기를 기도해봅니다. 그리하여 주의 사랑으로 잠에서 깨어나, 맑은 하늘을 보며 그분과 함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맑은 미소와 순결한 손길로 보듬으시는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다함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2002년 5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에스겔 서론

암담한 포로기에 미래의 소망을 드러내는 본서는 다른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예언과 아울러 과거와 현재에 일어난 사건들의 의미를 규명하는 데 주력한다. 다니엘서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을 바라보았다면 본서는 종교적 회복을 바라본다. 그러므로 성전의 회복과 종교적 세도에 흥미를 가지며 철저히 제사장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술하고 있다. 본서의 제목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단련시키신다'는 뜻을 가진 본서의 중심 인물이자 저자인 '에스겔'을 따른 것이다(1:3). 제사장이자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에스겔은 유프라테스 강 근처의 바벨론에서 남쪽으로 약 5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니무로 근처에 살았다. 그러다가 B.C.597년 유다 왕 여호야킨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으며(1:2, 33:21, 왕하 24:12, 14), 약 5년이 지난 후에 그발 강가에서 30세의 나이로 선지자 사역을 시작했다(1:1-3). 그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나, 갑작스런 아내의 죽음으로 가정 생활이 끝났으며(24장),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 사이에서 설교자로 활약을 했다. 그는 고독한 삶을 인내하며 성실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으나, 백성들은 실제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여호야킨이 포로로 잡혀간 지 27년째 되는 해에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다(B.C.570).

본서의 기록 목적은 추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하고 최종적인 회복을 제시하며 위로를 전하기 위함이다. 에스겔은 동 시대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멸망을 선포하는 동안, 멸망의 필연성과 함께 하나님의 미래의 구원 계획을 전달함으로써 용기를 주었다. 그는 포로민들에게 언약 백성이 포로로 잡힌 것이 죄로 인해 벌어진 당연한 상황임을 역설하고(18:25, 33:17, 20),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도록 촉구했다. 아울러 조기 귀환의 거짓희망을 불식시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동안 믿음으로 바벨론에 지내도록 권유하였다. 또한 이스라엘 족속의 멸망이 철저히 자신들의 잘못이며 결코 하나님의 무능함이 아님을 역설하고(18:25),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빛나게 된다고 선포한다. 결국 에스겔은 시종일관 하나님께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지라도 최종적으로는 본토 귀환과 왕국의 완성이

이루어짐을 전달하려고 의도하고 있다.

본서는 메시아를 묘사함에 있어서 왕직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반면,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은 배후에 암시하고 있다. 특별히 메시아는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겨진 유다 오아족의 백향목 가지' (17:22-24)로 묘사되며, 의를 가지고 오시는 자로 표현되었다. 또한 뿔로 묘사된 메시아는 회복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진실한 목자가 되심을 나타낸다(34:23-24). 결국 메시아는 모든 일을 수행하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전격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으로 언급되고 있다(37:24-25). 또한 메시아는 성령께서 주시는 새영을 통해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며(36:26,27)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분으로 소개된다(28:25, 36:22,25, 39:27).

내용분해

1.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1-24장)

1) 선지자의 부름(1:1-3:21)

2) 백성들의 우상 숭배(3:22-7:27)

3) 경고의 환상들(8-11장)

4) 심판에 대한 비유와 알레고리들(12-19장)

5) 백성들에 대한 심판(20-24장)

2. 열방들에 대한 심판(25-32장):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애굽

3. 이스라엘의 회복 (33-48장)

1) 참목자(33-34장)

2) 땅(35-36장)

3) 백성(37-39장)

4) 성전(40-43장)

5) 예배(44-46장)

4. 생명의 강, 거룩한 성, 거룩한 땅(47-48장)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우상숭배에서 돌아설 것을 촉구하시지만 완악한 백성들은 죄악의 길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본 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지만 불신자에게는 무서운 형벌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무섭게 심판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 본 하나님의 심판은 잔혹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보여주신 인내와 자비를 접어버리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참하게 죽입니다. 시체는 성전 뜰에 가득 쌓여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더럽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호하며 철저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의 와중에도 구원의 손길은 있었으니, 살인자들과 함께 먹 그릇을 찬 서기관을 예비한 것입니다. 먹 그릇을 찬 서기관은 심판에서 제외된 자를 선별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슬퍼하며 탄식하는 자들에게는 이마에 표를 주고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회적 신분이나 빈부의 차, 남녀 노소 누구나에게 상관없이 단호하지만 경건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 사람은 누구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보장해 줍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나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10장의 에스겔이 소개하는 환상에서 예루살렘 성읍은 불로 심판 받고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이 환상은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율법, 그리고 웅장한 성전을 갖고 스스로 교만에 빠져 우상숭배의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가증스러운 우상으로 가득 찬 성전에는 여호와와 영광이 계속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일 수가 없습니다. 고전 3:16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시대의 성전은 웅장한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성도들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몸에 들어오신 손님이 아니라 나의 몸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시는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혹시 죄악 속에 방황하도록 하는 일은 없습니까? 탐욕과 원망과 미움과 불순종의 쓰레기는 없습니까?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몸이 되려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는 환상을 볼 때, 두려운 마음으로 나의 몸과 마음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기도 제목 / ① 나의 몸과 마음을, 우리교회를 주님이 통치하소서. ② '위임목사님' 이 복음만을 전하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순간 에스겔은 두 가지 음성을 듣게 됩니다. 부패한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음성(과(1-13절) 이 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용서와 구원의 음성입니다(14-25절).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성에 남아있는 자들은 포로 된 자들을 업신여기고 여전히 죄악 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이미 철저하게 멸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타락한 지도자들은 아무 소용도 없는 전쟁을 계속하여 많은 백성들을 죽게 하고 지도자들도 마침내 끌려나와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악으로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시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인간의 완악함과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전혀 흔들림 없이 진행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성전과 율법이 있는 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람의 기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징계와 고난도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포함돼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설마 하나님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버리실까? 하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멸하시고 오히려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셨습니다.

심판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입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살게 하소서. ②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담당자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준비된 헌신이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에스겔은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과 멸망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으리라는 낙관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다가올 미래를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에스겔은 짐 꾸러미를 들고 가는 포로들과 같이 처량한 모습으로 처소를 옮깁니다(1-7절).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패역한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고있습니다. 더구나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잡혀갈 것과 두 눈이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까지 합니다(8-16절). 나아가 앞으로 이스라엘에 임할 기근을 예언합니다(17-20절).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기근으로 고통 받아야 된다는 사실은 무섭고 두려운 징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거짓된 예언에 현혹되어 심판을 부인하고 참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합니다. 에스겔은 거짓된 예언을 책망하고(21-25절) 심판의 임박성을 알리고 있습니다(26-28절).

유다 백성들의 근본적인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취급한 데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배교나 윤리적인 문제나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데서 온 결과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만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119:105).

기도 제목 / ① 나의 마음이 복음의 진리에 불들리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이스라엘 패망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3장에서는 백성들에게 잘못된 희망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도록 만든 거짓선지자들이 그 원인이라 책망하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거짓선지자의 메시지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말한 것입니다(1-4). 그들은 백성들의 잘못된 행동을 알면서도 고치려 하지 않고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백성들에게 전파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고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대신에 거짓된 평강을 선포함으로써 백성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타락의 길로 가도록 방조하였습니다. 이러한 거짓은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다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책임을 면할 수가 없게 됩니다(5-16절). 더구나 예언자로 자처하는 부녀들은 한두 조각의 떡과 한두 움큼의 보리를 얻으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래를 점치고 행운을 빌어주었습니다. 에스겔은 이들을 무섭게 책망합니다(17-23절).

참과 거짓은 때가 되면 결국 가려집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물이 나면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나에게 듣기 좋은 말이라고 지금 내게 이익이 있다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소위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설교라 할지라도 복음적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께서서는 일찍이 의인 열 사람만 있어도 소돔성을 용서하겠다고 하셨습니다(창18장).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시대에도 의인 몇 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기대를 단호하게 막아버립니다.

비록 포로 된 몸이지만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을 만나러 갔습니다. 백성들은 포로생활이 얼마나 오래갈지, 혹은 예루살렘이 과연 함락될지에 대해 하나님의 메시지 듣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도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음”(3절)을 에스겔에게 알게 합니다. 이와 같이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이 땅에 살았던 가장 의로운 사람 중에 세 명(노아, 다니엘, 욥)이 그곳에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대답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입니다. 이들이 중보 기도를 해도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의롭게 되는 길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이 죄인 구원해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심판에 대한 두 가지 징조와(12:1-20) 다섯 가지의 메시지(12:21-14:23)를 준 다음에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세 개의 비유(15-17장)를 주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사람의 사랑을 받지만 포도나무 자체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한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라?”(2절) 열매를 맺을 가능성은 별개로 하고 영겨진 포도나무 가지는 다른 나무보다 전혀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욱 구체적으로 질문합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3절) 건축자재로도 쓰이지 못한다면 불에 던져질 화목이 될 뿐입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이 타민족에 비해 전혀 내 세울 것이 없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로 비유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때만 가치와 존재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과대 평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됩니다.

죄악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사59:2), 사망을 가져오며(롬6:23), 괴로움과 고통을 안겨줍니다(사43:24). 죄악을 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 보혈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열매맺는 포도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혼인관계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 그 죄악은 곧 간음하는 아내의 죄악으로 표현되는데, 본 장에서도 예루살렘의 죄악은 간음한 아내(1-43절), 소돔보다 더 심한 타락(44-63절)으로 나타납니다.

본문 4-7절은 이스라엘의 초기 형편을 '버림받은 어린아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배꼽 줄도 자르지 못하고, 물로 씻지도 못하고, 강보에 싸지도 않은 채 들에 버려진 존재'가 바로 선택받기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 공로 없는 이스라엘을 불러서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견고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애굽, 앗수르, 갈대아 등 주변 나라들과 교통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함께 받아들인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궁극적인 원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풍성한 은혜를 나의 것으로 착각하는 오만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화려했던 교만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난 예루살렘은 소돔성보다 더 타락했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서를 읽으며 개인의 신앙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교회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됩니다.

기도 제목 / 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서 하나님은 수수께끼 같은 비유를 주십니다(2절). 이 비유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시대의 역사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동안 교류하고 있는 애굽(7절의 독수리)과 새로운 신흥 국가 바벨론(3절의 독수리) 사이에서 친 애굽파와 친 바벨론파로 국론이 분열된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과 화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일찍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예언했듯이 에스겔 선지자도 같은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애굽과 손을 잡고 바벨론에 반기를 듭니다. 그 결과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애굽과 손을 잡는 것이 이롭게 생각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다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의지할 곳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인간의 힘을 의지할 때는 참혹한 심판과 멸망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진리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 예언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 힘이 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내 탓이오’ 라는 스티커를 본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기 잘못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거나 적어도 돌리고 싶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것과 다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고통을 당하면서도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여전히 모르거나 혹은 그 이유를 조상들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개인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18장은 죄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는 사실과(14절) 의로운 삶에 대한 보상도 당사자에게만 있을 뿐이지 아들의 구원과는 무관하다는 것(5-13절), 회개하면 용서를 받게되나 지금 현재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면 옛날에 잘 섬겼다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21-29절)을 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합니다(30-32절).

구원은 하나님과 나, 일대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 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만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 조건은 ‘내’ 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아도 나 혼자 제외 될 수도 있습니다. 온 교회가 다 구원받아도 나만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18:32).

기도 제목 / 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업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파멸을 보지 못하고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안타깝게 보면서 왕들의 굴욕적인 역사를 슬픈 시로 표현합니다. 여호아하스 왕이 애굽에 포로로 잡혀 간 사실(1-4절), 여호야긴 왕이 바벨로에 포로로 잡혀간 사실(5-9절),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잡혀간 사실(10-14절)에 대해 비유로 된 애가를 부릅니다.

사자로 비유된 왕들은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른 왕들입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할 때 백성들을 파멸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인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막강한 힘과 권위를 가진 왕이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보잘 것 없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흠이 없고 완전한 통치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불완전한 왕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도록 합니다.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힘이 얼마나 보잘 것 없는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간은 약합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잡으십시오. 절망의 계곡이 깊을수록 희망의 빛줄기는 더욱 강렬하게 보입니다. 슬픔의 언덕을 지나면 기쁨과 소망이 있는 쉼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죄악의 무거운 짐을 내려 놓으세요.

기도 제목 / 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애굽에서부터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삶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반역하고 엇길로 나갔는지 선지자는 심도 있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 언약을 통해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에 따라 구원의 역사를 신실하게 진행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성실함을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배반을 일삼았습니다.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도,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에서도 우상을 숭배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나안에 정착해서도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켜 징계를 받게 됩니다(33-39절). 그러나 때가 되면 큰 회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40-44). 이렇게 에스겔은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이스라엘의 범죄의 역사를 대비시키면서 심판의 필연성과 구원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인간은 참으로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될 가망성이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이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님은 여전히 날 부르십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기쁨으로 달려갑시다.

기도 제목 / 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의 칼이 마침내 칼집에서 나올 때 이 세계는 무서운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그들의 종교적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성소에 대한 심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시작이 성소가 될 것이라는 예언은 언약백성의 영적 상태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임을 암시합니다.

성소에서 시작된 심판은 이제 예루살렘 거민에게로 확장됩니다. 백성들은 바벨론 군대의 엄청난 힘 앞에 저항할 용기도 상실하고 비참하게 무너질 것입니다(1-7절). 그리고 그 심판은 치절하고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철저할 것입니다(8-17절). 유다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진행 될 것인지 선지자는 거울을 보듯이 상세하게 예언합니다(18-27절). 그리고 이제 심판은 암몬으로 확장됩니다(28-32절). 암몬에 대한 심판은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되는 심판이 아니라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열국, 나아가 전세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선지자를 통해 심판을 예언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온 세상 인류에게 회개의 기회와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한다는 약속도 함께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칼이 칼집에 있을 때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들이 생명 줄을 던져 형제들을 구원하게 하소서. ② '단기 선교'를 위해 모든 교구원들이 믿음으로 준비하며 협력할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의 은총에서 떠나게 되면 그 결과는 악행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 사회 윤리적인 타락으로 그 죄악이 구체화됩니다. 이러한 타락은 하나님을 떠난 죄악의 본질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알게 하라는 말씀에 따라 유다의 수치스럽고 가증한 죄악을 낱말이 드러냅니다. 백성들의 죄악과 통치자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결과임이 드러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인간이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려는 의지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생각으로 선악을 판단하려 할 때 그곳에 무서운 죄악의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름대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 인간의 윤리로 바른길을 걸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통치자에서 백성들에게까지, 지혜로운 철학자들로부터 평범한 촌부에 이르기까지 바르게 사는 삶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답은 유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길뿐입니다.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기도 제목 / 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는 두 자매가 나옵니다. 하나는 '오홀라', 다른 하나는 '오홀리바'라 불리는 여인인데 '오홀라'는 사마리아를,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4절). 이들 두 자매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거역한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행음 사건을 소재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죄악이 얼마나 더럽고 수치스러운 범죄인가를 보여줍니다.

사마리아는 우상숭배를 자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서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앗수르와의 동맹을 모색하다가 오히려 앗수르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사마리아(오홀라)는 이것저것 다 주고 나중에는 버림받은 음녀로 묘사됩니다(5-10절). 그 아우 오홀리바는 이것을 보고 배워야 하는데 오히려 언니보다 더욱 심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오홀리바는 애굽과 동맹하였다가 바벨론에 기대었다가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멀리 하였습니다(11-35절).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들이 믿고 의지한 이방세력을 도구로 사용하여 이들의 죄악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게 됩니다.

음행 하는 두 자매는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선 성도들에게 직접적인 교훈이 됩니다. 성도는 신랑 되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섬기며, 예수님만 의지해야 하는데 오늘날 많은 주님의 신부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며, 권력에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당신이 참으로 의지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게 하소서. ② 각 교구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와 일꾼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문은 예루살렘의 죄악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끓는 가마에 대해 묘사를 하고 있고(1-14절) 중반부는 에스겔의 부인의 죽음에 대해 그리고 있으며(15-24절) 그리고 후반부는 선지자의 말을 기꺼이 듣는 청중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25-27절).

본문에서 '가마' (3절)는 예루살렘 도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고기와 뼈들' (4-5절)은 그 성에 거하는 거민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그 가마가 녹슨 상태로 있다(6,11,12절)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란 도시가 부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도시에는 살인이 횡행하고 있었습니다(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는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시는 죄악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런 죄악을 아무 거리낌 없이 짓고, 그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음란한 죄도 범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악들 때문에 그 백성들을 철저히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가정 속에 녹슨 가마와 같은 부패함은 없는지 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 돌리는 충현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녹슨 가마처럼 부패해서는 안됩니다.

기도 제목 / ① 그리스도의 보혈로 늘 청결한 삶을 살게 하소서. ② 교회 각 분야에 봉사할 '신실한 일꾼들' 을 많이 허락해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는 암몬(1-7절)과 모압(8-11절), 그리고 에돔(12-14절), 블레셋(15-17절)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2-14절에 나타난 에돔의 멸망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국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에돔이 유다를 침공했기 때문입니다(12절). 이것은 에돔이 이방인과 한 패가 되어 유다와 사마리아를 멸망시키는 데 동참했다는 말입니다. 나아가 열국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전란(戰亂)을 피해 도망가는 유다인들의 길목을 막고 그들을 살상했을 뿐만 아니라 포로된 자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기까지 했습니다(14절). 더욱 가증한 사실은 그들이 형제국인 유다의 성읍을 훼손하고 그 백성들의 재물까지 손을 댔다는 사실입니다(13절). 형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주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연합하여 유다를 친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요, 하나님에 대한 대적행위였던 것입니다. 결국 에돔은 A.D.70년 예루살렘 멸망 후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형제나 원수의 실패를 보고 기뻐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가장 저질적인 죄악입니다. 에돔의 멸망이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물든 우리는 원수의 곤고함까지도 동참하며 그 상처를 싸매며 위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마 5:44; 눅 6:27-29).

그리스도인은 형제의 아픔을 감쌀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고난 중에 있는 형제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소서. ② 교회의 모든 일들을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좇아 행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에스겔은 이제 북쪽에 위치해 있는 두로를 향한 심판으로 눈을 돌립니다. 1-14절에서 두로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이 예언되어 있고, 15-18절에는 두로 심판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반응이, 그리고 19-21절에서는 두로의 결정적인 패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두로는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을 보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민의 문’이란 열국의 부와 권세가 집중되었던 예루살렘의 번영했던 시절을 상기하는 말입니다. 즉 두로는 예루살렘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몰락하였으므로 그 영광이 자신들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두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자신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하셨지만 자신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에 대해서도 그냥 두시지 않고 심판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서 그의 백성을 존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애뜻한 사랑을 볼 수 있으며, 당신의 자녀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방인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을 때 하나님 자신이 받으시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의 백성의 삶에 늘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 보고 계십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이웃을 향한 구제와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 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26장이 두로의 멸망을 기뻐하는 내용이었다면, 본 장은 두로의 멸망을 슬퍼하는 노래입니다. 본 장은 두로의 영광과 힘에 대해 격찬하고 있는 전반부(1-11절)와 국제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한 것을 설명하는 중반부(12-25절), 그리고 자신의 영광에 도취되어 있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두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후반부(26-36절)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두로는 현재 영광과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로를 위하여 애가(哀歌)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2절). 그 이유는 두로가 무역업을 통한 경제적인 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3절하)는 자화자찬의 말입니다. 두로는 고대 근동의 무역 중심지입니다(3절). 또한 지체와 기술이 탁월하여 당시에 최고급 제품을 수입해서 최고의 배를 만들어 놀라운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5-7절). 그리고 이방 민족들을 용병으로 모집하여 약한 군사력을 보충했습니다(10절).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결국 두로의 멸망을 가져오는 요인이 된 것입니다.

두로의 멸망의 슬픈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자신만의 유익을 위한 쾌락과 지식은 결국 자기 삶을 파탄시키는 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참 행복의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은 곧 무너질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소서. ② 각 나라 가운데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인간의 마음속에는 타인보다 우월해지고자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권력이나 지식, 또는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며 이것이 지나치면 교만해 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두로의 왕은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본 장은 1-19절에서 두로 왕의 멸망과 그 원인을, 20-24절에서는 시돈에 대한 멸망 예언을, 마지막 25, 26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두로왕은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고 하면서 자신의 부와 지혜를 과신한 나머지 신성 모독죄를 범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당대에 최고로 지혜있는 사람으로 평가되던 다니엘보다 더 지혜가 있다고 오관하고 있습니다(3절). 이처럼 세속적인 성공이 두로 왕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두로 왕의 교만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바벨론을 통하여 징계하실 것을 밝히셨습니다(26:7-14). 결국 두로 왕은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폐위되고 수치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교만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 얻었기에 교만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겸손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흘러 나야와 하겠습니까.

십자가로 구원 얻은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 제목 / ①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하게 하소서. ②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심을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애굽 왕 바로와 관련하여 애굽의 멸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12절은 애굽의 파멸과 황폐에 대해 예언하고 있고, 13-16절은 애굽의 회복에 대해서, 그리고 17-21절까지는 느부갓네살의 분깃과 이스라엘을 향한 궁핍을 약속하고 있는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만하게 행하는 애굽 왕 바로의 모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국력과 부에 도취되어 있는 바로를 나일강의 악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3-5절). 악어는 나일 강에서 가장 포악하고 사나운 짐승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도 자신의 힘을 근거로 약소국가와 이스라엘을 괴롭히면서 자신을 절대 군주로 자처하여 신으로 숭배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는 자신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에까지 도전하는 신성모독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최악 된 자기 자신의 마음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망각할 때 인간은 교만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바로 이 교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항상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영원히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의 진리를 간직하고 생활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식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② 2002년 단기선교를 통해 전교회가 하나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장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총괄적으로 애굽의 파멸을 묘사하는 전반부(1-9절)와 구체적으로 애굽이 느부갓네살에 의해 황폐해질 것을 묘사하는 중반부(10-19절), 바로의 세력이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고 약화됨을 기술하는 후반부(20-26절)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에스겔은 애굽의 파멸의 날을 '여호와와 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선지자들에 의해 선포된 '여호와와 날'은 우주적인 심판의 날을 포함하는 날이지만, 여기서는 단지 애굽과 그 동맹국들이 멸망하는 날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4절).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특이하게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는 말씀을 네 번이나 찾아 볼 수 있습니다(6,10,13,22절).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여 주신대로 멸망당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어서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처럼 하나님 자신의 기뻐신 뜻을 따라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역사하셔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임을 기억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강기엽 단기 선교사(스리랑카)가 맡겨진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앓수르의 영광과 몰락을 애굽에게 상기시킴으로써 애굽이 자신들의 패망을 예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앓수르의 영광을 백향목에 비유하는 전반부(1-9절)와 교만으로 인한 앓수르의 멸망을 기술하는 중반부(10-14절), 그리고 앓수르의 몰락을 음부에 내려간 것으로 언급하고 있는 후반부(15-18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당시 앓수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와 풍요로 열국의 지배자가 되었으나 그로 인해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먼저 에스겔은 앓수르의 영광을 커다란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3-9절). 즉 앓수르는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많은 새와 동물들의 서식처가 될 정도로 장대한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음부로 내려가게 되며 많은 국가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게 된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15-18절).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앓수르의 번영과 패망을 선명하게 대비시키고 있는 것은 애굽으로 하여금 앓수르처럼 현재의 영광에 안주하여 교만하지 않도록 강력히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백향목같이 번성하고 견고한 앓수르와 애굽일지라도(8절) 하나님이 버리시면 음부에 떨어져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18절).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겸손하게 살도록 힘써야겠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기도 제목 / ① 공의로 세계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하소서 ②
최은아 평신도 단기선교사(스리랑카)가 현지에 잘 적응하고, 늘 성령
충만하여 어린이와 심방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29장부터 이어지는 애굽에 대한 심판예언의 마지막 부분이며 동시에 25장부터 계속되었던 이방 심판 예언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에스겔은 본 장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력들의 최후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데, 애굽을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력의 상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애굽의 멸망을 ‘물’로 비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사람의 발’과 ‘짐승의 굽’이 물을 흐리게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강’(14절)이나 ‘큰 물’(13절)은 애굽의 나일강을 의미하고 사람 또는 짐승은 애굽을 더럽힌 종교 지도자들과 불의한 권력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재물을 착취하였고 백성들을 압제할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평화를 깨뜨리기도 했습니다(왕상 14:25). 이렇게 물을 흐리던 모든 짐승들이 큰 물가에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13절 상). 그런데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더러워진 흠탕물을 맑게 하여 다시 흐르게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메시아 시대의 축복과 종말론적 평화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죄로 오염된 인간의 역사를 제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열어 가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음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최악의 흠탕물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생수이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기도 제목 / ① 구원의 생수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소서. ② 협력선교사(이집트의 허요셉)가 지속적으로 일하며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부터 48장까지는 에스겔서에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의 미래 회복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 장은 첫 번째 예언으로서, 에스겔의 소명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의 현재적 상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영적인 전쟁터에서 공동체의 타락과 종교적인 부패를 책임지는 영적 파수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파수꾼은 최선봉에 배치된 군인으로서 적의 동태나 이상 징후를 놓치지 않고 관찰해서 보고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파수꾼은 이 세상의 죄악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죄악 된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경고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7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파수꾼의 임무를 바르게 수행하여 공동체를 악과 파멸에서 구해낸다면, 생명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9절). 그러나 반대로 파수꾼의 사명을 등한히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8절).

오늘날 누가 이 사회와 교회를 깨울 수 있는 파수꾼입니까? 바로 복음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총현의 모든 성도들은 모두 복음의 진리와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와 교회를 깨우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② '총현선교훈련원' (CMTC)을 통한 모든 훈련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오늘 본문(11-16절)에서는 먼저, 목자인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와 그에 대한 심판을 지적하고(1-10절) 하나님께서 친히 양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11-22절)과 양들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을 밝히고 있습니다(23-31절).

본 장의 전반부를 통해서 우리는 들짐승들이 있는 위험한 곳에 양을 방치하고 있는(5, 6절) 못된 샅꾼 목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참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흩어진 양을 되찾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행위를 다섯 번이나 '찾다'라는 동사를 통하여 강조되어 있습니다(11, 12, 16절). 16절에 보시면 상해(傷害)입은 양을 치료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병든 그의 백성들을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의 양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양과 같이 우매한 우리는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날개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영생하며 살도록 그의 아들까지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오늘도 참 목자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참 목자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매순간 따르게 하소서. ②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특히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중보기도하는 일이 곳곳에 일어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인 1-9절까지는 옛적부터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에돔의 적대적 행위에 대한 심판을 서술하고 있으며, 후반부인 10-15절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 유다를 지배하려는 에돔의 욕심에 대한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적대 세력으로 등장했습니다(민 20:14-21; 24:15-19). 그 이후에도 에돔은 이스라엘을 소유하려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10절). 험준한 산악지대에 거주하고 있었던 에돔은 항상 비옥한 팔레스틴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자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소유하려고, 이스라엘의 환란을 보고 즐거워하며 비웃었습니다(15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실제적으로 암몬, 모압, 두로, 시돈, 애굽 등의 이방국가들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대한 표명(表明)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항상 그의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불신 세력으로 인한 고난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의 자녀들의 삶을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께서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확신하게 하소서. ② 농어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다음 장(37장)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회복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더 나아가서는 종말론적 구원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5절까지는 이방국가를 멸하심으로 이스라엘 땅을 회복 시키심을 묘사하고 있고, 16-38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24-31절에서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핵심은 여호와가 그들 가운데 거함으로 가능하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호와와의 내적 임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므로 '물로 더러운 것과 우상을 섬김에서 정결케' (25절)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결케 된 작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26절). 그리고 이 새 영을 통하여 새 마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27절). 이러한 '죄문제 해결 -> 여호와와의 내적 임재 -> 율법 준수'의 도식은 신약의 교훈과도 일치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 때에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통하여 죄를 다 씻어냄으로 가능합니다. 매일 애통한 심령이 됨으로 주님으로 인한 정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결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정결하도록 도와주소서. ② 전 주일학교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34장부터 집중적으로 기술되고 있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묘사가 절정에 이르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약 전체를 일관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전개 방향과 그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환상을 통하여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인도하셨는데, 그곳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하였습니다(1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뼈들을 향하여 살아나라라는 말씀을 대언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4-6절). 에스겔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히게 되었습니다(7,8절). 그리고 생기를 향하여 그 시체에 들어가라고 대언 했을 때 생기들이 그 속에 들어가므로 모든 시체가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9,10절). 하나님께서는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죄악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을 상실하여 스스로 살 능력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을 회복시킬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메시아 시대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환상은 우리 역시 과거에는 마른 뼈처럼 쓸모 없는 인생들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공홀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인생은 마른 뼈와 같습니다.

기도 제목 / ① 마른 뼈에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게 하소서. ② 5부 예배를 통해 주의 청년들이 복음에 매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마곡 땅에 있는 곡에 대한 심판에 관한 예언이다. 이러한 본 장은 곡의 전쟁 준비를 기술하고 있는 전반부(1-9절)와 곡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중반부(10-16절)와 곡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는 후반부(17-23)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나타난 ‘마곡’은 ‘로스와 메섹과 두발’ 지역을 포괄하는 명칭이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세상 세력의 상징으로 묘사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곡’은 성경에서 본 장과 대상 5:4에서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우나 세상 세력의 우두머리임이 틀림없다. 마곡의 연합군은 이스라엘의 전체를 뒤엎는 공격을 하고 있다(9절). 이스라엘은 공격을 받고 모든 재산을 수탈 당하고, 땅을 빼앗긴다(10-13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16절). 결국 하나님께서는 큰 지진과 폭우 그리고 불과 유황으로 곡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을 예언하고 그 결과 곡은 결정적인 패배를 당한다.

우리는 본 장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대적하는 무리가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대적들을 막아 주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의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성도들을 대적하는 무리가 항상 우리 주위에 진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항상 깨어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소서. ② 이 땅에 소외받는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전장(39장)에서 진술된 마곡의 완전한 멸망을 예언하는 전반부(1-8절)와 멸망 이후의 상황을 예언하고 있는 중반부(9-20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예언하고 있는 후반부(21-29절) 등으로 나누어 집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곡의 연합군을 멸망시키는 목적이 이중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임을 알게 하는 것이고, 이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통하여 이방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는 것입니다(6-8절). 또한 후반부에서는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범한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25, 26절). 이스라엘의 죄가 해결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당신을 거룩함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27절).

우리는 본 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심이 항상 그의 백성들에게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의 목적도,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의 목적도 결국은 그의 백성의 구원과 회복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백성이 그 뜻을 깨닫고 돌아오면 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마음에 새기면서 생활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그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깊이 알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1 과

성만찬의 의미

• 찬송 / 284장(주 예수 해변서) • 본문 / 롬 5:6~11

* 이 찬송은 전체적으로 우아한 느낌을 갖고 부드럽게 이어서 찬송합니다.
물론, 3, 4단의 절정 부분에서는 힘이 필요하겠지요. (무거운 느낌이나 지나치게 느린 템포가 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빠르게 ♩ = 100

가사의 발음 분명하게

1.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2. 생명의 인 나 의 주 여
3. 내 주 여 진 리 의 말 씀 으 로
4. 성령을 내 맘에 보 내 서 서

이 부분은 가사의 운율이 바뀌는 곳이므로
무섭고 가사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4단씩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으로 찬송합니다.

무 리 를 먹 이 어 주 심 갈 이
독 말 라 주 님 을 찾 나 이 다
사 술 에 얹 매 인 날 풀 으 사
내 어 돈 영 의 눈 밝 히 시 사

음정이 낮아지지 않게 주의,
가사를 정확하게 받음

반드시 절정 세게 찬송하여
절정을 향해 나아갑니다.

영생의 앙식을 나 에 게 도
해변서 앙 무 리 를 먹 임 갈 이
내 앞 에 무 병 화 를 누 먹 도
말 씀 에 감 추 인 침 진 리 를

절정 : 힘차게

여기도 위의 두저단에서와 같이.

5단

절정의 폭이 넓지만
음의 세로 이어지도록
찬송합니다.

풍족히 나 누 어 주 음 소 서
갈급한 내 심 령 채 우 소 서
영원한 아 생 명 도 주 음 소 서
(스피로산도 : 그 음을 특히 세게) 아 멘

‘주 예수 해변서’ (284장)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요 6:48)

미국 뉴욕 맨체스터 출신의 시인이며 화가인 래드버리(M. A. Lathbury, 1841~1913)는 1877년 어느 날, 아름다운 호숫가에서 열린 전도 집회에 참여 하였다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이적을 생각하며 놀라 우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이 찬송의 가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따르는 수천 명의 무리의 허기짐을 불쌍히 여기 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떼어 나누어 주시며 이들을 먹이셨 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마지막 만찬에서 자신의 몸이라 칭하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 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는 온 인류를 먹이시기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몸소 십자가에 못 박혀 죽 으신 것입니다. 나아가 부활하신 주님께선 이제 그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 찬송을 부르는 우리들의 마음에 진정으로 주님 주신 생명의 양식 의 배부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제는 세상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떡을! 그 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시기를 소 원합니다.

이 찬송은 복잡한 리듬이 아니라 한 박자 한 박자 차분한 리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차분히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는 주 님의 참 사랑의 손길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면서(서론)

오늘의 성경본문은 연약함과 경건치 않음, 그리고 예수께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은 의인과 선인, 희생과 죽음, 축복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에서 드러난 다양한 단어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느 누구도 의도적으로 죄인을 위해서 죽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류역사에 나타난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제외하고, 죄인을 위해서 죽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단지 예수만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8절). 우리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랑을 눈으로 보는 것을 더 바라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백 번 정도 들었다하더라도, 그것을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을 위해 죽으신 주의 사랑을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주의 만찬은 통해서 그 사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성찬에 대한 말씀을 아주 많이 들어왔고, 오늘 그것을 행하고 대하게 됩니다. 주의 성찬에 관한 말씀은 예수의 몸과 피를 말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약함과 예수의 희생적인 죽으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에 대해서 듣는 것 대신에, 그 사랑을 직접 눈으로 바라보기로 합시다. 그러한 실제적인 경험을 위해 함께 갈보리의 산으로 달려가 보면 어떻겠습니까?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로마서 5:6~11절을 읽고, 정해진 구절, 정해진 핵심단어에 따라 자신의 말로 기록해보십시오).

① 6절 - 죽으셨도다

② 7절 - 죽는 자

③ 8절 - 죽으심으로

④ 9절 - 그 피를

⑤ 10절 - 죽으심, 살으심

⑥ 11절 - 화목을 얻게 하신

2. 다음주일 설교('성만찬의 의미')의 단원에 따른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는 교훈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주의 성찬과 죄인을 위한 십자가'의 단원을 통해서 '주의 만찬'과 '주의 십자가'는 어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②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의 확증'이라는 단원을 읽은 후, 8절에 나타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라는 의미를 말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셨는지도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③ 참된 사랑은 실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그리스도의 실천적인 사랑에 대한 분명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실천적인

사랑'의 단원을 읽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났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 ④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움은 이사야 53장 3절~4절에 의해 입증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사야의 예언처럼 그분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다는 말입니다. 이제 '충성스러우신 예수'에 대한 단원을 읽으신 후, 주님을 향한 여러분 자신의 충성심을 평가해 보십시오.
- ⑤ '버림당하신 의미'에 대한 단원을 읽고, 예수께서 어떻게 버림을 당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버림당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을 주는지도 말해보십시오.

나가면서(결론)

1. 돌아오는 '성찬주일'에 여러분들은 이 성찬의 식탁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그분을 향해 예비 되어진 각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글을 가슴으로 읽고 묵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의 식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여,
당신의 이름 힘입어
당신께서 마련하신 거룩한 식탁에서
당신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나이다.
떼어주시는 떡은 찢기신 몸,
나눠주시는 잔은 흘리신 피
그 초라한 떡과 잔

내 입술에 닿을 때,

구주여,

내 영혼에 임하옵소서

경이롭게 임하시는 당신의 몸과 그 피로

내 영혼을 채워주소서

나의 죽음,

당신께서 대신하셨음을 감사하오니

구주여,

이제는 내가 당신을 위하여 죽을 수 있게 하여 주소서.

2. 이제 다음의 기도제목으로 다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성령이여, 나의 연약함과 죄인됨,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됨을 발견하게 하여 주소서.
- ②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와 연관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죽으심이 나의 죄로 인함이며, 주의 죽으심이 나의 생명으로 인함을 알게 하소서.
- ③ 주일에 있을 성찬의 식탁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됨을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하소서.
- ④ 5부까지 드려지는 성찬예배 모든 순간마다 십자가의 은총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소서.
- ⑤ 종현의 강단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증거되며, 영혼들이 하나님의 의롭다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의 은총을 맛보게 하소서.

제목 :

본문 :

제 2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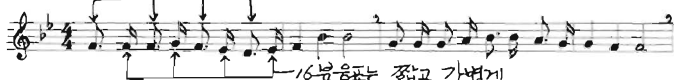
너를 통하여

· 찬송 / 399장(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 본문 / 렘 1:1~12

* 이 곡의 주된 리듬은 **점음표(부침)**입니다. 마치 힘차게 달리는 말발굽 소리와 같이 탄력을 갖고 생동감 있게 찬송해야 합니다.

조금 빠르게 ♩ = 104

점음표는 길고 힘있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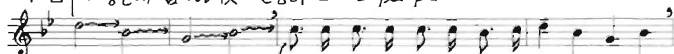
1.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 하리 라
2.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열려 내게 열릴 때 에
3.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 입 고
4.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 하는 대로 행 하 며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 며 약속 믿고 굳 게 서 리 라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 기 며 약속 믿고 굳 게 서 리 라 분명히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 기 며 약속 믿고 굳 게 서 리 라 확고하고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 으 며 약속 믿고 굳 게 서 리 라 후렴으로

2분음표가 힘있게 지속되면서 찬송해야 합니다.

후렴 → 중간에 힘 빠지지 않도록 주의.



굳 게 서 리 영 원 하 신 말 씀 위 에 굳 게 서 리
 템포가 느려지지 않게 주의.

늘임표(페르마타)

다시 원래의 템포대로 흥겹게 찬양합니다.
 (느리고 둔하게 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굳 게 서 리 그 말 씀 위 에 굳 게 서 리 라 **크악자**
 가사를 분명히 강조하면서 끝까지 지속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399장)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 24:35)

미국 펜실베이니아 육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앨리트였던 러셀 켈 소 카터(R. K. Carter, 1849~1928)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길에서 돌이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후로 그는 수많은 찬송가를 작곡하였는데 특별히 이 찬송은 그가 로마서 4:20-21 말씀에 은혜 받아 작사 작곡한 찬송가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롬 4:20-21)

하나님께서 나이 백 세나 된 아브라함과 태가 끊긴 사라에게 자녀를 약속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수많은 별들과 같이 번창할 것과 인류의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하심은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일 수 있었겠지만 그는 믿음으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롬 4:18)

이후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그르칠 수 있을만한 인간적인 실수를 여러 번 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며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변성하게 된 후, 애굽의 종살이를 하며 수 백년간을 지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모세를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시기 위하여 열 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지게 된 날 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양의 피로 말미암아 재앙으로부터 구별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재앙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 곡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점음표(부점)로 되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믿기에 너무나 기쁜 마음을 담아서 춤을 추듯 흥겹게 찬양합니다.

들어가면서(서론)

예레미야!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유다 민족을 향하여 멸망과 축복에 관한 예언을 하도록 위임받았을 때에는 젊은이였습니다. 만군(萬軍)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7~8절). 그리고 주께서는 손을 내미셔서 그의 입술에 대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9절). 주께서는 예레미야를 만지셨고, 그를 통해서 두려운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굉장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진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도 두려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택하신 정결한 그릇을 통해서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해주셨고, 오늘날까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오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예레미야 1:1~12절을 읽고, 정해진 구절에 따라 자신의 말로 기록해 보십시오).

① 1절~3절 - 예레미야와 사역기간

② 4절~5절 - 예레미야의 소명

③ 6절 - 예레미야의 응답

④ 7절~8절 -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

⑤ 9절~12절 - 예레미야에 대한 하나님의 위임

2. 다음주일 설교('너를 통하여')의 단원에 따른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는 교훈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먼저 '그의 종들을 통하여' 라는 단원을 읽은 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있는지 말해 보십시오.

②. '하나님께 속한 섬김의 능력으로' 라는 단원을 읽으시면서, 설교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생각할 때, 설교자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어떤 것인지 말해 보십시오.

-
- ③ '열방과 만국을 향해'라는 단원을 읽으신 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역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 ④ '계시를 맡기심으로'라는 단원을 읽으신 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 ⑤ '가난하고 죄인된 자들을 통해서'라는 단원을 읽고 난 후, 고린도후서 13:4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왜 가난하고 죄인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지 말해 보십시오.
- ⑥ '주의 명령을 주의 능력에 따라서'라는 단원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마태 복음 28:19~20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가장 큰 명령과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가면서(결론)

- 예레미야는 성격적으로 내성적이고 소심하며 눈물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르나이다”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약한 점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한 것을 다 아시면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2. 이제 다음의 기도제목으로 다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연약한 예레미야와 평범하고 가난하며 천한 자들, 그리고 낮은 자를 제자로 부르신 구주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 ②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날마다의 새로운 피조물됨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 ③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찾으셔야 할 영혼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들을 대하게 하소서.

제목 :

본문 :

제 3 과

성령이 임하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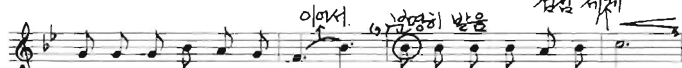
• 찬송 / 172장(빈 들에 마른 풀같이) • 본문 / 행 1:6~8

이 찬송은 한 마디를 2박으로 해서 찬송할 때에 비로소 이곡이 갖고 있는 느낌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동실 동실...)
한 마디안에 들어 있는 6개의 음들이 제각각이 아니라 하나로 조금 느리게 ♩=60 이어지는 느낌으로 유려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1. 빈 들 에 마 른 풀 같 이 시 들 은 나 의 영 혼
2. 빈 가 운 밋 소 리 들 러 산 천 이 출 을 추 네
3. 철 따 라 우 로 흘 내 려 초 목 이 무 성 하 니
4. 참 되 신 사 랑 의 언 약 어 길 수 있 사 오 라

이곳이 작아지면
안됩니다. 오히려
점점 세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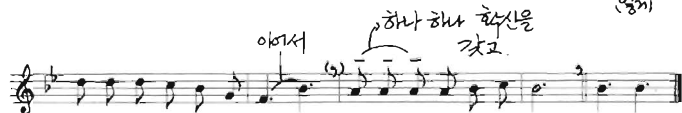


주 님 의 허 락 한 성 령 간 절 히 기 다 리 네
불 비 로 내 리 는 성 령 내 게 도 주 움 소 서
갈 급 한 내 심 령 위 에 성 령 을 부 으 소 서
오 늘 에 흠 족 한 은 혜 주 실 줄 믿 습 니 다

*여기까지 오면서 후시 템포가 느려지고 있지는 양은지 주의하세요.



가 물 어 메 마 른 땅 에 단 비 를 내 리 시 듯 조당히 세게
양지



성 령 의 단 비 를 부 어 새 생 명 주 움 소 서 아 멘

‘빈들에 마른 풀같이’ (172장)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겔 34:26)

이 찬송의 작시자인 다니엘 웹스터 휘틀(Daniel Webster Whittle, 1840~1901)은 19C 말 미국의 무디 부흥사와 함께 동역하였던 부흥사이자 찬송 작가입니다. 그는 젊어서 은행원으로 일하던 중 남북전쟁에 참전하였다가 한 팔을 잃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실의에 빠져 있던 그는 무디 선생의 설교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입고 변하여 1873년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전파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찬송의 작곡자인 제임스 맥그라나한(James McGranahan, 1840~1907)은 휘틀이 복음 전파를 위해 조직한 휘틀 전도단의 찬송인도자로서 11년간을 그와 함께 사역하며 많은 찬송을 작곡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이제는 육신과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전엔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같은 삶의 조건들이 우리의 삶을 좌우했을지라도 이제는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가장 갈급하고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자라게 합니다. 또한 죄악 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진정으로 이러한 성령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십니까? 진정으로 이 은혜에 목말라 하십니까? 빈들에 마른 풀같이 사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오늘 이 찬송의 가사가 어찌 그리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빈들과 같이 영적으로 메마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입기를 소망하면서 이 찬송을 불러 봅니다.

들어가면서(서론)

부름받은 제자들에게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야망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의 조국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민족적인 야망에 관한 것이었고 둘째로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었을 때에 그들이 높은 지위를 차지하여 영화를 누리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야망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팔레스틴에서 온 갓 기적과 권능을 행하셨을 때에 모든 기대를 예수께 걸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들의 야망은 복음서 여러 곳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마18:1, 마20:20-21, 막9:33-37...). 특히 막10:37절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요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할 때 주님의 공생애 기간 중 어떤 때였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때가 아십니까?(막11:1) 이제 몇 일이 지나면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으니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주님은 공생애 3년간 수많은 이적과 권능으로 자신의 메시아 되심과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고난에 동참해야 할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하며 세상의 영광만 구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성경공부를 통해서 어리석었던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닮았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잘못된 초점에서 벗어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사도행전 1:1~11절을 읽고, 정해진 구절에 따라 자신의 말로 기록해 보십시오).

① 1절~2절 -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연속성

② 3절~5절 - 예수께서 부활 후에 하신 사역과 약속

③ 6절~8절 - 주의 증인

④ 9절~11절 - 예수의 승천과 약속

2. 다음주일 설교(‘성령이 임하시면’)의 단원에 따른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는 교훈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제자들의 실망’에 대한 단원을 읽으시고, 제자들이 예수께 실망한 것들과 그 결과에 대해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도 과거에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실망한 경우가 있었다면 무엇 때문이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이러한 것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신자들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 ② '제자들의 변하지 않은 관심'에 대한 단원을 읽으시고,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그들의 관심이 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가치관과 세계관에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 ③ '참 제자의 소망'에 대한 단원을 읽으시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떠한 변화를 뜻하는 것인지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현재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확신하건데, 여러분의 영혼에 존재하는 소망이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를 판가름하는 요소일 것입니다.

- ④ '성령을 따라 일하신 예수'에 대한 단원을 읽으시고, 예수께서 어떻게 성령을 따라 일하셨는지 말해보십시오.

- ⑤ '성령에 따라 일하는 제자'에 대한 단원을 읽으시고, 제자가 성령을 따라 일한다는 것이 왜 중요한 일인지 말해보십시오.

나가면서(결론)

1. 누가사도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강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의 교회와 부름 받은 성도들이 성령에 따라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고 확신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충만' 하십니까? 성령충만하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이제 다음의 기도제목으로 다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날마다 내 안에서 새롭게 생기게 하옵소서.
- ② 참된 보배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한 소망이 주께서 가르치신 하늘에 속한 소망으로 변하게 하소서.
- ③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이 내게 이루어져서, 말씀에 대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소유하고, 기도의 무릎과 증인으로서의 열매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제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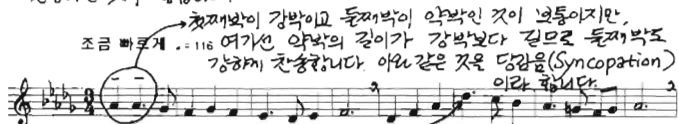
본문 :

제 4 과

죄인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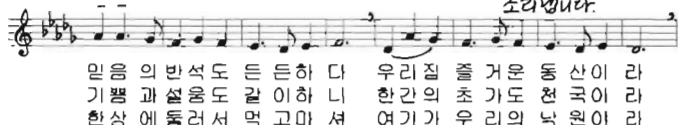
• 찬송 / 305장(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 본문 / 눅 19:1~10

*이 찬송은 한 마리를 한 박으로 하는 느낌으로 들으려
찬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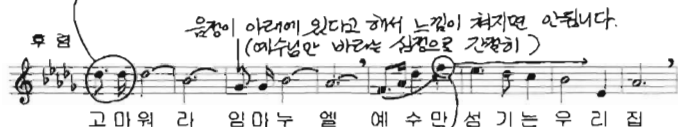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잇고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디갈이 일하는 온 식구가

느낌이 이어지게 노래하여
정점에서 더욱 독성찬 음원으로
소리냅니다.



점음표(부침)가 둘째박이 약박으로 주의.



예수→인 하는 식으로 소리는 이어가야지만 이 음은
내기가 수월합니다. 조금은 쉬지 않은 음정이지만 귀착되지
마시고 평정은 낮게 하고 하품하듯 목구멍을 열고 아래배에
호흡의 힘을 빌려서 높이 띄우는 느낌으로 자신있게 소리내어보세요.



이곳은 가사의 내용과 같이 평안하면서도
기쁨으로 찬송하십시오. 성서하게 가사를
반송하시면서 명백히 하십시오.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305장)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이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음이여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이다.” (시 112:1~3)

이 찬송의 작시자인 전영택(田榮澤, 1894~1968) 목사는 활발한 기독교적 문학 활동 및 많은 찬송시의 창작을 통해 교계에 크게 이바지한 인물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는 잠 17:1 말씀에 기초하여 참된 기독교 가정을 묘사하여 쓴 것입니다. 곡은 당시 숙명여자대학교 작곡과 교수로 있던 교회음악가 구두회(具斗會, 1921~) 장로가 작곡하였습니다.

넓고 좋은 집과 풍성한 재물, 훌륭한 학벌과 좋은 직장, 그리고 이러한 생활환경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여유롭고 평온한 삶... 마치 요즘 대중 매체의 광고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면을 연상케 하는 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한한 것이며 결국은 다 썩어지게 될 헛된 것들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세상적인 조건과는 아무 관계없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가난한 심령에 찾아와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으나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마음이 열려 있고 공물을 바라는 죄인 된 심령에 찾아와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실 때에 진정한 죄의 문제의 해결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송을 부르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속한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위에 세워진 곳이 되길 소원합니다(1절). 세상적으로는 열악한 여건일지라도 주님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전심으로 하나 되는 만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2절). 우리의 수고를 갚아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내려주시는 참된 양식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3절). 성도님들의 가정이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길 바라는 믿음으로 찬송합니다.

들어가면서(서론)

‘여리고 성(城)’!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 가야 하는 죄의 상징인 성! 그리고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리라”고 여호수아에 의해 저주 받은 성!(수 6:26). 그래서 실제로 그 저주가 발생하기도 했던 성! “벤엘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만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쑈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왕상 16:34).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구원의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는 성!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모든 가족과 함께 구원받았고(수 6:25),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사용되었던 성(눅 10:30)! 소경이 메시아를 만나 구원을 얻었고(눅 18:35), 유대사회에서 죄인으로 낙인찍힌 ‘삭개오’와 그 집이 구원받았던 성! 그 죄악된 성에서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천한 죄인들이 하늘의 백성이 되는 그 성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삭개오에 대해서 말씀을 배울 것입니다. ‘죄인의 집’이라고 여김 받던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일을 배우게 됩니다. 바라기는 가정의 달, 5월 달이 지나가기 전에, 삭개오의 집에서 일어났던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흘러 넘치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누가복음 19:1~10절을 읽고, 정해진 구절과 주제를 토대로 자신의 말로 기록해 보십시오).

① 1절 - 예수와 여리고

② 2절~4절 - 삭개오의 관심

③ 5절~6절 - 예수님의 관심

④ 7절~8절 - 죄인의 집에서 생긴 일

⑤ 9절~10절 - 구원

2. 다음주일 설교('죄인의 집')의 단원에 따른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는 교훈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여리고 성에서'라는 단원을 읽으신 후, 여리고 성에 대한 느낌을 각자 말해 보십시오.

② '여리고 성의 삭개오'라는 단원을 읽으신 후, 오늘날 삭개오와 같이 죄인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직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해 보십시오.

-
- ③ '삭개오의 관심'이라는 단원을 읽으신 후, 삭개오는 예수께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말해 보십시오. 특별히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라는 말을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④ '삭개오를 위한 뽕나무'라는 단원을 읽으신 후, 뽕나무는 삭개오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께서는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면서, 장차 십자가에 달리게 될 자신의 미래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말해 보십시오.
- ⑤ '삭개오의 반응'과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읽으신 후, 삭개오의 반응과 주변 사람들의 반응의 차이점을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지 말해 보십시오.
- ⑥ '삭개오의 새로운 삶'이라는 단원을 읽으신 후, 회개의 정의에 대해서 말해 보십시오.
- ⑦ '죄인의 집에서 의인의 집으로'라는 단원을 읽으신 후, 삭개오의 가정에서 벌어질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물론 삭개오가 아내와 자녀가 있었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삭개오가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에 대해, 아내와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해 보십시오).

나가면서(결론)

1. 나무 위의 행복

행복을 찾아서
미친 듯이
나무 위로 올랐습니다.
그곳에
조용히 내려앉으신 당신!
마침내,
나는
천국의 가지에 매달린
작은 새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당신도 나처럼

나무 위로 오르시고
그 까닭에
나는
감추었던 눈물로
잠들지 못하는
깊은 밤의
뼈곡새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여!
말씀하여 주소서.
그대 사랑
내게 머물렀음을!

2. 이제 다음의 기도제목으로 다함께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부모가 변해야 자녀가 변하며, 가족 모두가 변해야 가정이 천국으로 변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삭개오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진정한 회개를 보고 가족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마도 그의 갑작스런 행동에 대해 가족들은 삭개오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궁금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삭개오가 예수에 대해서 가졌던 그 관심이 가족들에게 전염된 것이겠지요. 그리고, 가족들은 그의 변화를 보고 놀랄 것이고, 결국 자신들도 삭개오처럼 새로운 삶을 살겠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1). 그러므로 이 시간, 나의 심령의 변화와 새로운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그리스도를 가정에 전파하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시길 기도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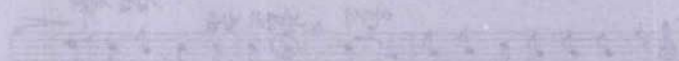
15 2 1x

1-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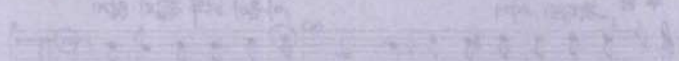
(1-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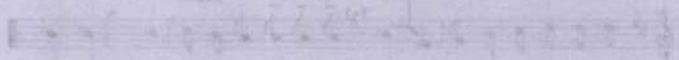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제 5 과

비를 내리지 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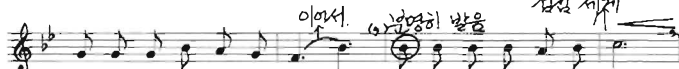
• 찬송 / 172장(빈 들에 마른 풀 같이) • 본문 / 사 5:1~7

* 이 찬송은 한 마디를 2박으로 해서 찬송할 때에 비로소 이곡이 갖고 있는 느낌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동실 동실...)
한 마디안에 들어있는 6개의 음들이 제각각이 아니라 하나로 조금 느리게 ♩=60 이어지는 느낌으로 유려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1. 빈 들 에 마 른 풀 같 이 시 들 은 나 의 영 혼
2. 반 가 운 빗 소 리 들 러 산 천 이 춤 을 추 네
3. 철 따 라 우 로 흘 내 려 초 목 이 무 성 하 니
4. 참 되 신 사 람 의 언 약 어 길 수 있 사 오 라

이곳이 작아지면
안됩니다. 오히려
정말 세계



주 님 의 허 락 한 성 령 간 절 히 기 다 리 네
봄 비 로 내 리 는 성 령 내 게 도 주 움 소 서
갈 급 한 내 심 령 위 에 성 령 을 부 으 소 서
오 늘 에 흘 족 한 은 혜 주 실 출 밑 습 니 다

* 여기까지 보면서 혹시 템포가 느려지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하세요.



가 물 어 메 마 른 땅 에 단 비 를 내 리 시 듯
작아지지 않게



성 령 의 단 비 를 부 어 새 생 명 주 움 소 서 아 멘

‘빈들에 마른 풀같이’ (172장)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겔 34:26)

이 찬송의 작시자인 다니엘 웹스터 휘틀(Daniel Webster Whittle, 1840~1901 : 미국의 저명한 부흥 전도자이며 찬송 작가)은 에스겔서 34장 26절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를 찬송가를 만들려고 작사한 것이 바로 찬172장 ‘빈들에 마른 풀같이’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죄와 심판과 은혜!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죄는 너무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은 이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향하여 끊임없이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패역한 길로만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하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향한 과정인 것이지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의 힘으로 비가 내리게 할 수 없지요. 매마른 땅에 비가 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성령의 단비입니다. 이 성령의 단비는 땅 위의 식물을 자라게 하듯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라게 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세상에 속한 부귀와 명예와 행복을 이루는 열매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썩어지고 없어지게 될 열매가 아니라 천국의 상급이 예비된 영원한 생명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실 때에 참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단비를 마음껏 맛보기를 소원하시며 기도하시는 심정으로 간절히 찬송 드리십시오.

돌어가면서(서론)

오늘의 본문에는 '포도원에 대한 비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고 기름진 산을 경작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당연히 좋은 열매가 맺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도 기름진 곳이었고 땀흘리고 애써서 밭을 경작했으며 포도나무도 극상품으로 심었으니, 좋은 열매가 맺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포도가 맺혀졌습니다. 전혀 엉뚱한 결과에 대해 탄식하고 비통에 잠긴 농부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포도원 비유'를 읽으면, 그 고통스러운 농부의 마음이 이 글을 읽는 이의 마음에 전달됩니다.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그 결과에 대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목적이었습니다.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타락을 모두가 깨닫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결국 들포도를 맺은 포도나무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없애버리시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혹독한 심판을 경고하시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즉 비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공부를 통해서 영혼의 생수가 되는 은혜의 단비를 마음껏 누리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비!' 이것은 우리의 현실의 삶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물의 근원이요,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영혼을 가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이기도 합니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이사야 5:1 ~7을 읽고, 정해진 구절에 따라 자신의 말로 기록해 보십시오).

① 1절 - 포도원

② 2절 - 헛된 수고

③ 3절~4절 - 헛된 수고에 대한 탄식

④ 5절~6절 - 심판

⑤ 7절 -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

2. 다음주일 설교('새로운 날')의 단원에 따른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는 교훈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은혜의 비'에 대한 단원을 읽고, '비'가 성경에서 어떠한 상징이나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나는것을 말해 보십시오.

② '비가 없는 구름'에 대한 단원을 읽고, 구름이 있으나 비가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해 보십시오.

③ '말씀에 관심 없는 신앙'에 대한 단원을 읽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비가 없는 구름과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 보십시오(즉 말씀에 관심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불신앙적인 결과가 벌어질 것인지 말해 보십시오).

④ '돌이키지 않는 신앙'에 대한 단원을 읽고, 왜 구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와 그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 보십시오.

⑤ '돌이키는 자에게 부으시는 은혜의 비'에 대한 단원을 읽고, 어떠한 자에게 은혜의 단비를 부으시는지 말해 보십시오.

나가면서(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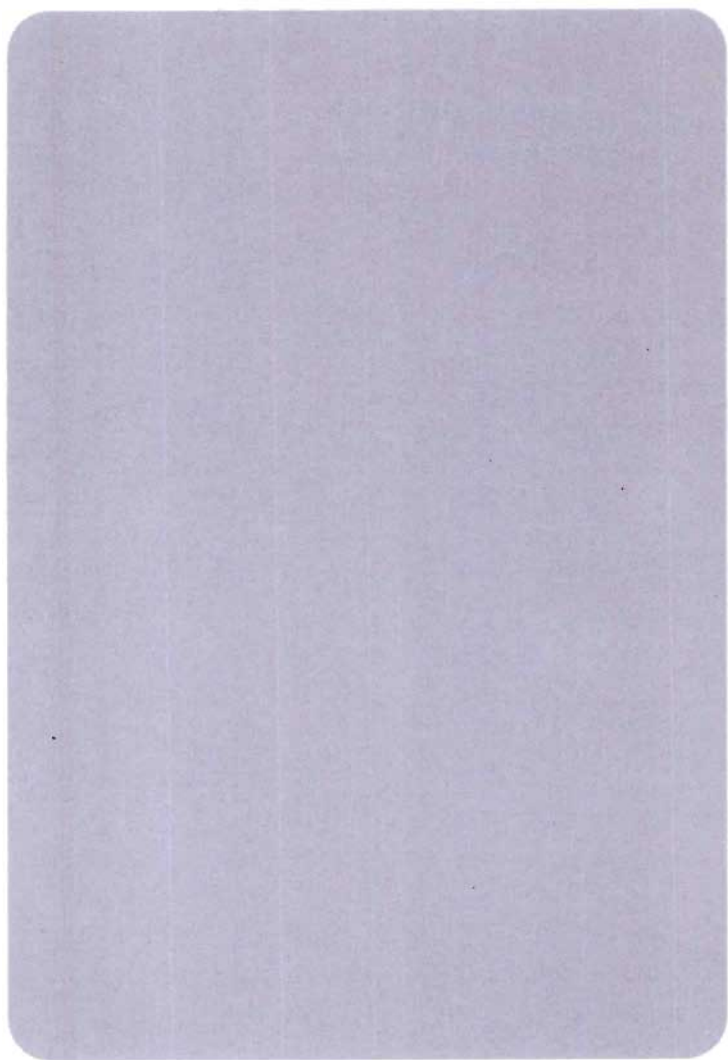
1.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빗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의 근원이시며, 모든 영혼들이 다 마실 수 있을 만큼 위대한 구원의 강물을 흐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잘 것 없는 죄인의 십자가에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의 강물을 흐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영원토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리시는 은혜의 빗줄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으로부터 어떤 은혜의 빗줄기를 공급받아보셨습니까?

2. 이제 다음의 기도제목으로 다함께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 ①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회개의 촉구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떠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 ② 내 자신이 말씀과 십자가에서 떠난 모습을 용서해 주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 ③ 충현교회와 내가 봉사하는 부서, 그리고 나의 영혼 속에 성령께서 내리시는 은혜의 단비가 가득하도록 기도합니다.

제목 :

본문 :



남성도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 | |
|------------|---------|
| 찬 송 | 다같이 |
| 성경봉독 | 인도자와 교독 |
| 구역공과 | 인도자 |
| 기 도 | 인도자 |
| 주기도문 | 다같이 |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45 과

충성스러운 전도자 빌립

찬송 / 276장

읽을 말씀 / 사도행전 8 : 26~40

외울 말씀 / 사도행전 8 : 26

신약성경에는 4명의 빌립이 등장합니다. 빌립 헤롯(마 14:3; 막 6:17; 눅 3:19)과 분봉왕 빌립(눅 3:1), 사도 빌립(마 10:3; 막 3:18; 눅 6:14; 요 1:44) 그리고 전도자 빌립입니다.

'말(馬, horse)을 사랑하는 자' 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전도자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의 직분자들로 선출된 일곱 집사 가운데 한사람입니다(행 6:5). 이 전도자라는 말은 사도 빌립과 구별하기 위해 붙여진 호칭입니다. 그는 사마리아(행 8:5-13)와 광야(행 8:26-38) 그리고 거의 대부분을 가이사랴(행 8:39-40, 21:8)에서 활동했습니다.

빌립 집사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가 작은 일에 성실했고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사람(행 6:3, 5)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삶의 기준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공부를 통하여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살펴보기

1. 다음 질문에 따라 본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무엇을 지시하셨습니까?(26절) -

② 빌립이 광야에서 누구를 만났으며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27, 28절) -

③ 빌립은 내시에게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32, 35, 38절) -

④ 내시가 세례 받기를 자청하고 나선 것을 보아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36, 37절) -

2. 빌립 집사가 이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행 6:3-5; 8:26, 29, 39)

우리 생각으로는 광야로 나가라는 주의 사자의 말씀(26절)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또 많은 표적과 기적, 회심의 역사가 있는 빌립을 사람이 전혀 없는 광야로 이끄시는 것은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빌립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일어나 갑니다(27절).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뜻을 생각하며 적용하기

3. 사도행전 16장 6-10절을 보면 사도 바울과 성령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사도 바울은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성령의 뜻에 순종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사역 속에 혹 순종하기 어렵거나 순종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4. 빌립은 교회 안에서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집사에 임명될 정도로 주위의 신임을 얻었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봉사하였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을 읽어보십시오(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무언가 다른 것을 기대하십니까? 가능한대로 여러분의 현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이 지겨워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허락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위대한 인물로 자신이 사용되기를, 남들이 보기에도 놀라운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때로 지금의 일들을 너무나 작고 보잘 것 없이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소중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 빌립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오직 주 예수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행 8:45, 35).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할 부분은 어떤 곳입니까?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세부적으로 생각하시고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잘되고 있을 때에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고전10:12). 그렇지 않으면 전혀 다른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늘 자기 자신보다는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마16:24). 그리고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이것저것 핑계하지 않고 오직 '아멘' 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자신과 이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빌립 집사에게 주셨던 복음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적으로 단기선교가 진행중입니다. 빌립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선교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MEMO

MEMO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 | |
|--------|------------|
| 찬 송 | 다 같이 |
| 성경봉독 | 사회자 |
| 메시지 낭독 | |
| 기 도 | 다 같이 |
| 주 기도 | 다 같이 |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 2002년 5월호 · 발행인 / 김성관 · 편집인 / 노광현

· 집필진 / 만나 : 박인기(7-15일), 이성욱(16-31일) 목사

· 구역예배공과 : 김동하 목사 / 남성구역예배공과 : 이유헌 목사

·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물]
